

# 고구려 평양위치 관련 기록의 검토\*

- 일본학자들의 장수왕 천도설에 대한 재검토-

복 기 대\*\*

(e-mail : xjdx@hanmail.net)

##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중국 사서의 장수왕 천도의 평양위치 관련기록의 확인
3. 기록들에 대한 비교분석
4. 맺음말

キーワード：長寿王(King Jangsu), 平壤(Pyongyang), 溟水(Paesu), 樂浪(Nakrang), 鳥居(torii)

## 1. 들어가는 말

한국사서 속에서 고구려 도읍과 관련한 기록들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 후세의 연구자들이 관련 연구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혼란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수세기 전 조선시대 후기 ‘실학시대’에도 나타났다.<sup>1)</sup> ‘실학시대’의 고구려 도읍 관련 논쟁은 박지원, 최덕중, 김경선 등이 주장하는 ‘만주 중심설’과 안정복, 한진서, 정약용 등이 주장하는 ‘한반도 중심설’로 나뉘었다. 이 중 후자의 주장들은 일본학자들에 의해 이어졌고,<sup>2)</sup> 오늘날 고구려 도읍지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래는 고구려 도읍지에 대한 간략한 연구사이다.

\* 이 연구는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4-KFR-1230006).

\*\* 인하대학교 대학원 융합고고학과 교수.

1) 당시의 고구려 연구는 시대적 특징처럼 고구려의 정신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시기였다. 그러므로 도읍지에 대한 연구는 크게 중요시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만열(1987), 『조선후기 고구려연구』 『고구려사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pp.591-636.

2) 그 대표적인 것이 정약용의 연구결과를 채용하는 것이었다.

고구려의 첫 도읍에 대한 기록들은 주로 일본학자들에 의해 비정되기 시작했다.<sup>3)</sup>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이마니시 류(今西 龍), 시라토리 쿠라키치(百鳥庫吉) 등의 일본학자에 의해 고구려 첫 도읍지는 졸본(卒本), 즉 오늘날 중국 요동성(遼寧省) 본계시(本系市) 환인현(桓仁縣)으로 확정되었다.<sup>4)</sup> 이들이 고구려 도성을 연구하면서 기본 사료로 참고한 사서는 『요사(遼史)』와 『위서(魏書)』, 『삼국사기(三國史記)』, 가담(賈耽)의 『도리기(道理記)』 등이다. 또한 고고학 자료로는 1905년 집안현 지현(知縣) 오광국(吳光國)이 통구 서북쪽 90리에 위치한 판석령(板石嶺)에서 수습한 비(碑) 조각을 증거로 내세웠다. 이 비는 ‘위나라 장수 관구검의 전승비’라고 고증되었고,<sup>5)</sup> 이 비를 근거로 동천왕이 평양으로 옮기기 전까지의 도읍인 환도성을 집안(集安)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sup>6)</sup>

시라토리는 위와 자료들과 도리이 류조, 이마니시 류, 세키노 다다시(關野 貞) 등의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도읍을 비정하였고, 고구려의 첫 도읍지인 추모왕의 졸본을 오늘날의 환인으로, 두 번째 도읍지인 유리왕의 국내성을 오늘날 길림성 집안시로 비정하였다.<sup>7)</sup> 이와 같은 시라토리의 학설은 현재까지도 한국인 학자들에 의해 견지되고 있는 상황이다.<sup>8)</sup>

시라토리의 주장 이래로 고구려의 도읍지에 대한 견해는 거의 재검토되지 않았고 계속된 연구는 그의 주장을 공고히 해주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의문을 갖는 것이 전부였다.<sup>9)</sup>

3) 이 연구사는 이미 발표된 필자의 글을 요약한다. 복기대(2010), 「고구려 도읍지 천도에 대한 재검토」, 『고조선단군학』 22, 고조선단군학회, pp.199-243.

4) 白鳥庫吉(1940) 「丸都城及国内城考」 『朝鮮史研究』, 岩波書店.

5) 이 비가 관구검과 관련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6) 鳥居龍藏(1915) 「丸都城の説明」 『世界』 p.109.

7) 白鳥庫吉(1940) 「丸都城及国内城考」 『朝鮮史研究』, 岩波書店.

8) 한국에서 고구려 도읍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대부분이 일본학자들이 비정해놓은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약간의 위치 이동을 제시하거나 과거에 비정한 위치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제시하는 정도이다. 중국의 경우도 큰 차이는 없다. 1990년대 이전에는 전문적인 고구려사 전공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일본학자들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에 일본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복기대(2016), 「고구려 ‘황성’시대에 대한 시론」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1, January, pp.393-408.

9) 이병도 「高句麗 東皇城考」,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pp.370-374.

또한, 한국학계에서 고구려의 첫 도읍이 확정된 데에는 이병도의 연구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sup>10)</sup>

한편, 북한학계에서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는 손영중이 대표적이거나 그의 주장도 일본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sup>11)</sup> 다만 그는 고구려의 '부수도(副首都)'라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즉, A.D. 247년 이후 지금 북한의 평양을 고구려의 부수도로 삼았다가, 장수왕 대에 와서 이곳을 수도로 삼았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sup>12)</sup>

중국에서는 위존성(魏存成)이 비교적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존성은 일본학자들의 견해를 탈피해 각종 사서와 중국 고고학계의 조사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그는 『삼국사기(三國史記)』를 토대로 천도과정을 추적했지만 결론은 과거 일본학자들이 연구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위존성의 연구 이후 대다수 중국학자들의 견해 역시 위존성의 연구 틀 안에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sup>13)</sup>

이에 대해 필자는 기존 연구들의 사서 인용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은 오늘날 중국 요녕성 요양이라는 새로운 견해를 제기하였다.<sup>14)</sup>

지금까지 간단하게 고구려 도읍 관련 연구사를 정리해 보았다. 일본인 학자들과 그 이후의 학자들은 졸본을 환인으로, 국내성과 환도성을 집안으로, 평양성을 오늘날 평양으로 귀결시켜 고구려의 도읍을 3곳으로 비정한 것이다. 평양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있지만,<sup>15)</sup> 오늘날의 평양으로 보는 것이 시라토리부터 이병도, 위존성을 거쳐 현재까지 내려오는 정설이다.

10) 한국역사학계에서 고구려 도읍지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일로 간주되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고구려 도읍지에 대한 견해는 일본학자에서 출발한 내용을 이병도가 확인해주었기 때문에 그 후 거의 재검토되지 않고 그대로 인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1) 손영중(1990) 『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pp.84-87.

손영중은 그의 저서에서 일본인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과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의 특수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12) 손영중(1990) 『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p.317.

13)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중국학계의 고구려 도읍에 관한 연구는 일본학자들이 짜놓은 틀에서 이어지고 있다. 위존성, 이진복, 왕면후뿐만 아니라 최근 집안을 발굴한 학자들조차 출토되는 유물의 연대를 무시하고 과거의 연구를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4) 복기대(2010) 「고구려 도읍지 천도에 대한 재검토」 『고조선단군학』 22, pp.199-243.

15) 동천왕 때 읍진 도읍은 동황성(東黃城)으로, 그 위치가 오늘날의 북한의 강계라는 설을 제기한 학자도 있다. 이병도의 앞 글 참조.

그러나 그간의 연구를 살펴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평양에 천도하였다는 기록을 모두 오늘날 북한지역의 평양으로만 비정한다면 집안과 평양으로 반복해서 천도를 하는 것이다.<sup>16)</sup>

둘째, 평양 연구를 위한 새로운 기록들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에서 출판된 자료는 최근에 발견된 자료는 물론, 1400여년 전에 확인된 것들도 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로는 연남생의 묘지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학자들과 중국학자들은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해당 자료를 활용했다면 평양이 비정된 위치는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셋째, 조선에서 명·청나라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남겨 놓은 기록들을 활용하지 않았다.

위의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각 나라의 고구려 평양성에 관련한 기록을 확인해보면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평양의 위치와는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한·중·일의 관련 기록들을 모두 소개하기에는 자료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중국문헌의 기록에 남아 있는 평양의 위치를 정리·분석해 보고자 한다.

## 2. 중국 사서의 장수왕 천도의 평양위치 관련기록의 확인

평양의 위치와 관련된 중국의 사료는 개인적인 사료와 관찬사서로 구분되는데, 사료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연대적으로

16) ‘평양(平穰)’이라는 글자가 최초로 나온 것은 광개토태왕비이다. 이후로 중국 사서에도 평양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三国史記』에 가장 많이 나온다. 그런데 이 평양이 어디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그런데 『三国遺事』에서는 평양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밝혀놓았다. 『三国遺事』, 『古朝鮮條』 건국기의 내용에 “古記云 \_\_\_\_\_ 号曰壇君王儉 以唐高即位五十年庚寅(唐高即位元年戊辰 則五十年丁巳 非庚寅也 疑其未寔) 都平壤城(今西京) 始称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 又名弓(一作方)忽山 又今弥達 御国一千五百年 周虎王即位己卯 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 為山神 寿一千九百八歲(“조선陞於阿斯達 평양성으로 하였는데, 지금의 서경이다.”라는 주석을 달아놓았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평양이 오늘날의 평양으로 정해진 것이다. 이 기록과 주석으로 평양으로 확정되면서 그 뒤에 나오는 평양은 모두 현재의 평양이 되고, 고구려 도읍인 평양은 평안도의 평양으로 해석되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역도원의 『수경주(水經註)』이다. 이 책은 2~3세기 경 상흠이 저술한 『수경(水經)』이라는 지리서에 북위의 역도원이 주석을 단 것이다. 이 주석의 작성 시기는 역도원의 생몰연대를 통해 6세기 경으로 추정된다.

『水經』의 저자는, 낙랑군의 위치를 고증하는 과정에서 패수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패수는 낙랑현과 누방현에서 나와 동남으로 임패현을 지나 동으로 바다에 들어간다.<sup>17)</sup>

역도원은 주석을 작성하기 위해 고구려 사신을 만나 이 기록에 대해 묻게 된다. 이때 고구려 사신은 고구려의 도성인 평양성이 패수의 북쪽에 있으며, 평양성 남쪽에 있는 패수는 동쪽에서 나와 서쪽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역도원은 이 답을 듣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패수의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였고, 그에 관련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무제 원봉 2년 누선장군 양복과 좌장군 순체를 보내 우거를 토벌하게 하였는데, 패수에서 우거를 격파하여 그를 멸하였다. 만약 패수가 동으로 흐른다면 패수를 건넌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sup>18)</sup>

역도원은 『水經』에 ‘패수’라는 단어가 나오자 2세기경의 ‘패수’와 6세기경의 ‘패수’를 같은 ‘패수’로 인식하였고, 상흠이 기록하였던 낙랑군에서 발원한 패수의 물길은 잘못 된 것이며, 낙랑군은 평양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다.

역도원은 서기 6세기 경의 인물인데, 400여 년을 되돌아가 『水經』의 저자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지리 고증에 있어서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답사는 하지 않고, 사신의 말만 들어 『水經註』를 쓴 것이다.

17) 『水經』

「涇水出樂浪郡鏤方泉，東南過臨涇泉，東入於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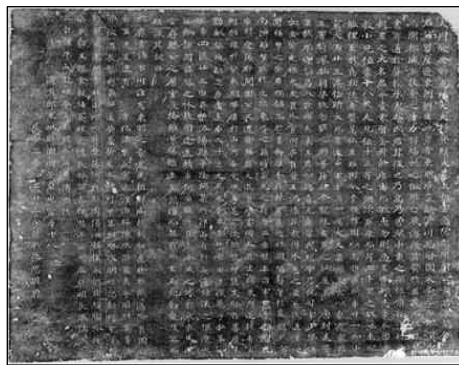
18) 『水經註』

「武帝元封二年，遣樓船將軍楊僕左將軍荀彘討右渠，破渠於涇水遂滅之。若涇水東流，無渡涇水之理。其地今高句麗國治，余訪蕃使，言城在涇水之陽，其水西流逕故樂浪朝鮮泉，即樂浪郡治，漢武帝置而西北流。故地理志曰，涇水至增地泉入海。考之古今，於事差謬，蓋經誤証也。」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6세기 경의 고구려 평양성이 패수의 북쪽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 시기는 대체로 고구려 후기에 속하는데 당시 도읍은 장수왕이 옮긴 평양이다. 또한 당시의 패수는 동쪽에서 나와 서쪽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검토해야 할 자료는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생의 묘지명이다. 이것은 당나라 때의 기록으로, 그 당대의 기록이 남아 있어 중요시 해야 할 자료이다. 이 묘지명은 연남생이 고구려를 배신하고 당나라에 항복한 이후 작위를 받고 장안에서 생활하다가 죽자 당나라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묘지명을 남긴 것이다. 이 기록의 연대는 680년을 전후한 시기로, 당나라 시기이다.(그림1참조)

묘지명에서는 연남생의 출신지를 ‘요동군 평양성’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sup>19)</sup> 당나라는 고구려를 무너뜨린 이후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또 다른 행정구역인 ‘요동군’을 설치하였는데 그 안에 고구려의 평양성이 있었다는 표현이다. 구체적으로 고구려의 평양성이 당나라의 요동군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나라의 요동군을 확인하면 고구려 평양성의 위치 또한 알 수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나라 요동군은 오늘날 요령성 요서지역 동단과 요동평원 일부를 가리킨다. 이 지역의 물길은 동에서 서로 흘러가는 곳으로 요동군의 유력한 후보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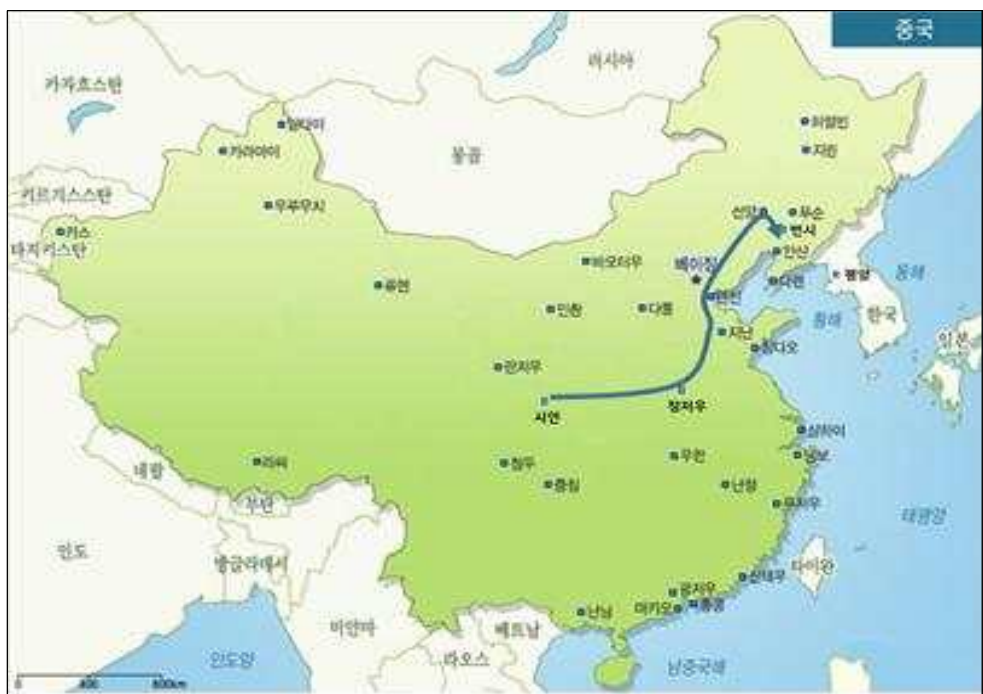
[그림 1] 연남산 묘지명 탁본

다음으로 살펴 볼 사료는 『구당서』와 『신당서』이다. 두 사료 모두 「고구려전」을 가지고 있는데, 『구당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고구려의 면적을 동서로

19) 「泉男生墓誌銘」

「公姓泉諱男生字元德遼東郡平壤城人也原夫遠系本出於泉既託神以隤祉遂因生以命族」

3,100리, 남북으로 2,000리라고 적어 놓았다. 또한 고구려 도읍인 평양성의 위치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구당서』는 당나라 장안성에서 5,100리이고<sup>20)</sup>, 『신당서』는 당나라 장안성에서 5,000리라고 기록 되어 있다.<sup>21)</sup> 두 사서에 기록된 평양까지의 거리 차이는 약 100리지만, 이 정도의 차이는 굳이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 거리는 당시의 장안성인 지금의 섬서성 서안에서 시작하는 거리로 아래의 지도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서안에서 요양 일대까지의 이동경로 표시도

20) 『旧唐書』 「東夷列傳」 高句麗  
 「高麗者，出自扶余之別種也。其國都於平壤城，即漢樂浪郡之故地，在京師東五千一百里。東渡海至於新羅，西北渡遼水至于營州，南渡海至于百濟，北至靺鞨。東西三千一百里，南北二千里。」

21) 『新唐書』 「東夷列傳」 高句麗  
 「高麗，本扶余別種也。地東跨海距新羅，南亦跨海距百濟，西北度遼水与營州接，北靺鞨。其君居平壤城，亦謂長安城，漢樂浪郡也，去京師五千里而羸，隨山屈繚為郛，南涯涘水，王築宮其左。又有國內城·漢城，号別都。水有大遼·少遼：大遼出靺鞨西南山，南歷安市城，少遼出遼山西，亦南流，有梁水出塞外，西行与之合。有馬訾水出靺鞨之白山，色若鴨頭，号鴨淥水，歷國內城西，与塩難水合，又西南至安市，入于海。而平壤在鴨淥東南，以巨艦濟人，因恃以為塹。」

두 당서에 기록된 내용 중 또 하나 중요한 기록은 고구려에서 백제와 신라를 가는 방법이다. 두 당서에는 백제와 신라를 갈 때 바다를 건너 간다고 기록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사이에는 바다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다’라고 표현 한 것이다.

만약 고구려 평양성이 오늘날 평양에 있었다면 ‘바다를 건너 간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강을 건너 간다’고 하였거나 혹은 ‘강을 건너고 고개를 넘어 간다’고 하였을 것이다. 『구당서』와 『신당서』에서는 고구려 평양성까지의 거리를 기록할 때 100리 차이도 지적해서 기록했는데, 두 당서가 이런 중대한 일을 확인하지 않고 기록했을 것인가? 이 기록은 분명 고구려 평양성이 지금 북한지역의 평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송나라에 이르러서는 서경(徐兢)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 평양 관련 기록을 남겨 놓았다. 서경이 고려에 온 것은 1,100년경으로 송의 수도가 개봉에 있었을 시기이다. 그는 당시 고려에 다녀왔던 기록을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남겼는데, 평양성의 내력을 설명하였다.

고구려는 당나라 이전부터 도성이 평양(平壤)에 있었다. (그 곳은) 본래 한 무제(漢武帝)가 낙랑군(樂浪郡)을 설치했던 지역이며, 당고종(唐高宗)이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둔 곳이다. 『당서(唐書)』 「지리지(地理志)」를 살펴보면 평양성(平壤城)은 압록수(鴨綠水) 동남에 있었는데, 당말(唐末)에 고려 군장들이 여러 대를 겪은 전란에 혼나서 점차 동쪽으로 도성을 옮겼다. 지금의 왕성은 압록수(鴨綠水) 동남 천여리에 있는데, 옛 평양성이 아니다.<sup>22)</sup>

고종(高宗)이 또한 이적(李勣)에게 명하여 가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왕 고장(高藏)을 사로잡고 그 땅을 갈라 군현(郡縣)을 만들었으며,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평양성(平壤城)에 설치하고 군사를 두어 지켰다. 뒤에 무후(武后)가 장수를 보내어 그 왕 걸곤우(乞昆羽)를 죽이고 걸중상(乞仲象)을 왕으로 세웠으나 또한 병으로 죽으매, 중상의 아들 조영(祚榮)이 즉위하였고 따라서 그 민중 40만을 차지하여 읍루(挹婁)에 응거하여 당나라의 신하가 되었

22) 『高麗圖經』

「高麗自唐以前 蓋居平壤 本漢武帝所置樂浪郡 而唐高宗所建都護府也 以唐志考之 平壤城乃在鴨綠水東南 唐末 高麗君長 懲累世兵革之難 稍徙移東 今王城在鴨綠之東南千余里 非平壤之旧」

다. 중종(中宗) 때에 와서 흘한주(忽汗州)를 설치하고 조영으로 도독발해군왕(都督渤海郡王)을 삼으니 그 뒤부터 드디어 이름을 발해라고 하였다.<sup>23)</sup>

이 글에서 서공은 고구려의 평양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고구려는 당나라 이전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고 당나라 때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다. 또 측천무후 때 대조영이 왕으로 즉위하였는데, 당 중종 때 흘한주를 설치하고 대조영을 발해왕으로 삼았으며 그 뒤로 발해가 되었다는 기록이다.

이 기록을 볼 때 고구려의 평양성은 현재 북한지역의 평양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현재의 평양지역을 발해의 건국지로 보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이로 보아 고구려의 평양은 한반도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공의 기록보다는 늦은 기록이지만 『요사』의 기록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사(遼史)』 「지리지(地理志)」 동경도(東京道)에는 고구려 평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실려 있다.<sup>24)</sup>

「동경도」, ‘동경요양부’

본래 조선의 땅이었다.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옥중에서 풀어 주고 그가 조

23) 『高麗圖經』

「高宗又命李勣往平之。俘其王高藏。裂地而為郡。建安東都護府於平壤城。以兵鎮守。後武后遣將。擊殺其王乞昆羽。而立其王乞仲象。亦病死。仲象子祚榮立。因有其衆四十萬。拋于挹婁。臣于唐。中宗時。乃置忽汗州。以祚榮為都督渤海郡王。其後。遂号渤海。」

24) 『遼史』 「志」 ‘地理’, ‘東京道’

「東京遼陽府，本朝鮮之地。周武王釋箕子囚，去之朝鮮，因以封之。作八條之教，尚禮義，富農桑，外戶不閉，人不為盜。伝四十余世。燕屬真番、朝鮮，始置吏、築障。秦屬遼東外徼。漢初，燕人滿王故空地。武帝元封三年，定朝鮮為真番、臨屯、樂浪、玄菟四郡。後漢出入青、幽二州，遼東、玄菟二郡，沿革不常。漢末為公孫度所拋，伝子康；孫淵，自称燕王，建元紹漢，---魏滅之。晉陷高麗，後歸慕容垂；子宝，以勾麗王安為平州牧居之。元魏太武遣使至其所居平壤城，遼東京本此。唐高宗平高麗，於此置安東都護府；後為渤海大氏所有。大氏始保挹婁之東牟山。武後萬歲通天中，為契丹尽忠所逼，有乞乞仲象者，度遼水自固，武後封為震國公。伝子祚榮，建都郡，自称震王，併吞海北，地方五千裏，兵數十萬。中宗賜所都曰忽汗州，封渤海郡王。十有二世至彝震，僭号改元，擬建宮闕，有五京、十五府、六十二州，為遼東盛國。忽汗州即故平壤城也，号中京顯德府。太祖建国，攻渤海，拔忽汗城，俘其王大諱撰，以為東丹王國，立太子凶欲為人皇王以主之。...

渾河在東梁、範河之間；沙河出東南山西北流，逕蓋州入於海。有蒲河；清河；淇水，亦曰泥河，又曰葑芋濼，水多葑芋之草。...耀州，刺史。本渤海椒州；故縣五，椒山，貉嶺、漸泉、尖山、巖淵，皆廢。...巖淵縣。東界新羅，故平壤城在縣西南。東北至海州一百二十裏。」

선으로 가자 그 땅에 책봉하였다. 그가 8조법금을 만들어 예의를 숭상하고, 농상을 장려하여 생활이 풍족하게 되자 대문을 닫지 않아도 도적질하는 백성이 없었다. 40여 대를 전해 내려왔다. 연나라 때 진번과 조선에 속하였으며, 처음으로 관리를 두고 성벽을 쌓았다. 진나라 때에는 요동의 변방에 속하였다. 한나라 초에 연나라 사람 위만이 옛 공지(空地)에서 왕이 되었다. 무제 원봉 3년(B.C.108)에 조선을 평정하고 진번, 임둔, 낙랑, 현도 4군으로 삼았다. 후한 때에 청주와 유주 두 주를 오가며 편입되었으며, 요동과 현도는 그 연혁이 일정하지 않았다. 한나라 말년에는 공손도가 이곳을 차지하여, 아들 공손장에게 전해지고 손자 공손연이 연왕(燕王)을 자칭하고 소한(紹漢)이라 연호를 세웠으나 위나라에 멸망되었다. 서진 때 고려에 함락되었다. 뒤에 모용수에게 귀의하였다가 그 아들 모용보가 고구려 왕 고안을 평주목사로 삼아 그곳에 살게 하였다. 원위(元魏) 태무제(太武帝)가 그가 살고 있는 평양성으로 사신을 보내니, 요나라 동경이 본래 이곳이다. 당나라 고종이 고구려를 평정하고 이곳에 안동 도호부를 두었다. 후에 발해 대씨의 소유가 되었다. 대씨는 처음에 읍루의 동모산을 차지하고 있었다. 측천무후의 만세통천 연가에 거란 이진충의 꾀박을 받게 되었을 때, 걸걸중상이란 자가 요수를 건너 스스로 성을 굳게 지켰다. 이에 측천무후가 진국공(震國公)으로 봉하였다. 아들 대조영에게 위를 전하니 그는 도읍을 건설하고 진왕(震王)이라 자칭하고 발해 북쪽 지역을 병합하여 영토가 사방 5천리나 되었고 군사는 수10만이나 되었다. 중종이 그들의 도읍에 흘한주란 이름을 하사하고 대조영을 발해군왕으로 봉하였다. 12세대이진 때 이르러 황제를 참칭하고 연호도 자기 연호를 쓰고 궁궐을 중국의 황궁으로 본떠 지었으며, 5경 15부 62주를 차지하여 요동의 성대한 국가가 되었다. 흘한주는 곧 옛 평양성이며 중경 현덕부라 불렸다. 태조가 나라를 세우고 발해를 공격하여 흘한성을 함락시키고, 그 왕 대인선을 포로로 잡고서 발해를 동단왕국(東丹王國)으로 만들었다. 태자 야율도육을 세워 인황왕으로 삼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

혼하(渾河)는 동량(東梁)과 범하(範河) 사이에 있고, 사하(沙河)는 동남쪽 산에서 흘러 나와서 서북쪽으로 흘러들어 개주(蓋州)에서 바로 발해로 들어간다. 포하(蒲河), 청하(清河), 패수(溙水) 또 니하(泥河)라고도 하고 현우박(荇芋瀾)이라고도 하니 물에 현우초(荇芋之草)가 많아서이다. …

『요사(遼史)』에 의하면 요나라 동경이 지금의 요양인데, 이곳은 원래 한나

라 땅이었고, 고구려 장수왕이 도읍한 곳인데, 이곳이 바로 평양이라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서들과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동경도(東京道) 요주(耀州) 엄연현(嚴淵縣) 서남쪽에 평양성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요주(耀州) : 자사(刺史)를 두었다. 본래 발해의 초주였는데, 예날 다섯 개의 현이 있었다. 초산현, 초령현, 시천현, 첨산현, 암연현인데 모두 폐지되었다. ... 암연현(巖淵縣) : 동쪽 경계는 신라이며, 옛 평양성은 암연현의 서남쪽에 있었다. 동북쪽으로 1백 20리를 가면 해주(海州)에 이른다.<sup>25)</sup>

해당 기록은 매우 구체적인데, 요사의 기초본이 만들어졌을 시기에도 평양성 관련 흔적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6)</sup>

위의 기록들을 종합하면 고구려의 평양성은 오늘날 중국 요녕성 요양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금나라의 관리가 정부의 명령으로 심주(瀋州)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이 지역이 옛 고구려의 평양성이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 놓았다.<sup>27)</sup>

명창 개원(1190) 춘2월 12일 병신, 나는 사신의 일로 부봉(部封)을 살피러 나갔다. 이날 심주(瀋州)에서 묵었다. 심주가 당의 땅에 있었을 때 일찍이 고려가 침략하여 근거를 두었다. 고종대에 이르러 이적(李勣)에게 명하여 동쪽을 정벌하게 하여, 안동도호부를 평양성에 두고 요동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 후에 혹 고성(故城)을 다스렸다 하고, 혹 신성(新城)을 다스렸다고 하나 실제로는 지금의 심주이다.

이 기록은 금나라 관리가 당대의 기록을 남긴 것인데, 이 심주는 오늘날 중국 요녕성 ‘심양, 요양’ 일대를 말한다. 이 기록 역시 『요사』의 기록과 일치한다.

또한 『원사(元史)』에는 당시 평양에 관한 혼란을 불식시키는 설명까지 달고 있다.

25) 『遼史』 「志」 ‘地理’, ‘東京道’  
 「耀州, 刺史. 本渤海椒州; 故巢五, 椒山, 貉嶺, 漸泉, 尖山, 巖淵, 皆廢. ... 巖淵縣. 東界新羅, 故平壤城在縣西南. 東北至海州一百二十裏. 」  
 26)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遼史』 곳곳에 고구려의 흔적이 남아있다.  
 27) 『全遼金詩』 권113 -허항정 행정록‘王寂宿- 瀋州懷古’  
 「明昌改元春二月十有二日丙申 子以使事出按部封 是日宿瀋州 州在有唐時嘗為高麗侵拋 至高宗命李勣東征 置安東都護府於平壤城 以領遼東 其後或治故城 或治新城 實今之瀋州也 ...」

동녕로(東寧路)는 본래 고구려(高句麗) 평양성(平壤城)인데 장안성(長安城)이라고도 한다. 한(漢)나라가 조선(朝鮮)을 멸하고 낙랑(樂浪), 현도군(玄菟郡)을 두었는데 이 낙랑의 땅이다. 진 의희(晉 義熙) 이후에 그 왕 고련(高璉)이 처음으로 평양성(平壤城)에 거하였다. 당(唐)이 고구려를 정벌하고 평양(平壤)을 빼앗자, 그 나라를 동쪽으로 옮겼는데 압록강 동남쪽 천여리 되는 곳이다. 옛 평양(平壤)이 아니다. 왕건(王建)에 이르러 평양(平壤)으로서 서경을 삼았다.<sup>28)</sup>

이 기록은 원래 고구려의 평양은 원나라의 ‘동녕로(東寧路)’ 지역이었는데<sup>29)</sup>, 고구려가 무너지면서 평양이 지금의 평양으로 이주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평양은 옛 평양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평양은 오늘날 한반도 평양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주 구체적으로 평양의 전후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고구려 이후 발해, 요, 금이 이어졌지만, 당대의 사서들은 남아있지 않다. 『요사(遼史)』와 『금사(金史)』는 원나라가 무너지기 바로 전에 급히 편찬된 것으로, 두 사서는 기록의 사실 여부에 많은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사서는 원나라 말엽에 급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요사(遼史)』는 이미 금나라 때 편찬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금사(金史)』 역시 원나라 때에 이미 기초사료가 다 만들어졌다는 기록으로 보아 원나라 때 만들어진 두 사서는 그 이전본을 모본으로 하여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sup>30)</sup> 때문에 사학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두 사료의 진실성은 의심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요사(遼史)』는 지금의 만주지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에 버금가며, 한국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되는 사료이다. 나아가 『삼국사기』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자료 또한 제공해준다.

다음으로 검토할 사서는 명나라 때의 기록인 『대명일통지』이다.<sup>31)</sup> 이 책에

28) 『元史』 「志」 地理

「東寧路，本高句麗平壤城，亦曰長安城。漢滅朝鮮，置樂浪、玄菟郡，此樂浪地也。晉義熙後，其王高璉始居平壤城。唐征高麗，拔平壤，其國東徙，在鴨綠水之東南千余裡，非平壤之舊。至王建，以平壤為西京。」

29) 지금의 요령성 요양지역을 말한다.

30) 유철 저 신태갑 역(2000) 『중국사학사상의』 신서원, pp.413~458 15항 요, 금, 원, 명 사학개관 참조.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32)</sup>

평양성

압록강 동쪽에 있으며 다른 이름으로는 ‘왕검성’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기자의 나라이다. 성 밖에는 기자무덤이 있다. 한나라 때는 낙랑군지역이었고, 진(晉)나라 의희(義熙)년간에 고련(高璉- 고구려 장수왕)이 성에서 처음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 서경으로 불렸고, 원나라가 동녕로로 하였다.

이 기록에서는 고구려 장수왕이 요동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 놓고 있다. 그 지역은 바로 요양지역을 말하는데, 그 근거는 명나라 ‘동녕위’는 원나라 ‘동녕로’자리인데 그 자리는 곧 지금의 요녕성 요양이기 때문이다.<sup>33)</sup>

그 후 청나라 때 만들어진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에서도 이 요양지역이 고구려에 점거되었던 곳이라면서 역사의 기록을 남겨 놓았다.<sup>34)</sup>

다음은 『대청일통지』에 기록된 내용이다. 이 책에서는 별도로 조선관련 기록을 넣으면서 ‘조선은 성경(지금의 중국 요녕성 심양)에서 동쪽으로 천팔백리에 있으며, 조선의 역사를 주나라 기자의 봉지로 시작하여, 전국시대에는 연나라에 속하였고, 진나라 때는 외요였고, 서한 초기에는 노관의 연나라에 속해 있다가 노관과 위만의 반란으로 잠시 위만의 나라였다가 다시 한무제 때 낙랑, 임둔, 진번, 원토군 지역이었으며, 그 뒤 여러 나라가 할거하다가 부여의 후손인 고씨가 점령하면서 훗날 고구려가 되었다고 설명한다.<sup>35)</sup>

31) 이 책은 명나라 황제의 명을 받아 李賢등이 전체 명나라 안의 행정에 필요한 지리를 정리한 책인데 1461년에 완성되었다. 이 책안에 요동지역을 설명하는 곳에 평양성에 관한 기록을 남겨 놓았는데, 이는 고구려의 평양성이 명나라의 행정구역안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2) 『大明一統志』 - 李賢  
 「平壤城：在鴨綠江東一名王儉城即箕子之故国城外有箕子墓漢為樂浪郡治晉義熙後其王高璉始居此城後号西京元為東寧路」

33) 이 기록에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요양지역이 한의 낙랑군지역이라는 것과 기자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조선초기에는 한반도 평양이 한나라 낙랑군 지역이었다든지 기자묘가 있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자무덤에 관한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명나라 사신들도 조선에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34) 『讀史方輿紀要』 卷三十七 「山東八」  
 「遼東都指揮使司..後魏得之仍為遼東昌黎等郡 尋又為高句麗所拋 唐征高麗初置遼蓋二州 後又置都督府九 又置安東都護府」

35) 원래 본문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를 간추려 정리하였다.

### 3. 기록들에 대한 비교분석

앞 장에서 검토한 중국문헌에는 고구려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이 일관되게 현재 중국 경내에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요사』, 『금사』, 『원사』, 『명일통지』, 『독사방여기요』까지는 현재 요녕성, 요양 및 심양시 일대를 고구려 평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36)</sup> 뿐만 아니라 그 문맥들을 살펴 보면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요양일대)을 고구려가 무너질 때 까지 고구려 평양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청일통지』에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의 역사는 기자이래로 모두 한반도에서 전개된 것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 기록과 전대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대청일통지』는 어떤 역사적 근거가 없이 ‘조선’이라는 명칭만을 근거로 모든 역사를 정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즉 ‘기자조선’이라는 국명을 시작으로 조선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조선이라는 국호를 가진 나라의 범위에 기자이래 모든 역사를 정리를 한 것이다.<sup>37)</sup> 이는 『대청일통지』를 저술한 사람들이 착오를 한 것으로 그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 평양의 위치를 고증할 때 『당서(唐書)』를 참고하였다. 그런데 『당서(唐書)』에 나타난 평양의 위치는 모두 지금의 평양을 가리키지 않는다.<sup>38)</sup> 가장 염두에 둘 것은 당나라가 고구려와 국운을 걸고 전쟁을 한 나라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고구려의 지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김부식은 그런 당나라의 기록을 참고로 고구려 평양성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김부식이 주장한 평양은 지금 평양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sup>39)</sup> 그러므로 『삼국사기』 실린 평양관련 기록은 다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참조: 『嘉慶重修一統志』 卷五百五十, 「朝鮮」

36) 요령성 요양, 심양시 일대는 거리가 불과 50k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전통시대에는 거의 한 지역으로 봤다.

37) 『대청일통지』에 기록된 내용들은 훗날 한국의 실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38) 『당서(唐書)』에는 장안성에서 평양성까지의 거리가 5,000리 라고 말했으며, 고구려 땅에서 신라와 백제를 가려면 모두 바다를 건너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기록들은 지금 평양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다.

39) 복기대 「고구려 ‘황성’시대에 대한 시론」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1, January (2016), pp. 393-408.

## 5. 맺 음 말

현재 한국학계에서 고구려 장수왕이 옮긴 도읍인 ‘평양’의 위치에 대한 문제는 주된 연구대상이 아니다.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의 위치는 오늘날 평양으로 확정된 후 논의 대상으로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사서를 검토하면 그간 우리 학계나 일본학계가 인식하고 있던 고구려 도읍지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먼저 중국기록을 참고하여 장수왕이 옮긴 평양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중국 문헌에 기재된 고구려 평양 관련 기록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중국역사에서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외국과의 전쟁에 나선 사례는 많지 않다. 이 많지 않은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양제와 당태종의 고구려 침략이었다. 후세의 중국 학자들은 그들의 황제들이 원정했던 평양의 위치를 기록으로 남겨 놓았다. 때문에 매우 신빙성을 가진 기록일 수밖에 없다. 중국 문헌의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이나 고구려의 마지막 도읍은 오늘날 요녕성 요양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3 참조)



[그림 3]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의 위치

이 밖에 자연지리를 활용하여 평양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패수의 흐름이었다. 그동안 한국학계와 일본학계에서 장수왕의 평양을 연구하

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 것은 동에서 서로 흐르는 강인 대동강이었다. 이 근거는 모든 문헌기록들을 무시할 수 있는 근거였다. 고구려 사신이 역도원에게 직접 패수가 동에서 시작하여 서로 흐른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시대 후기 학자들이나 일본학자들은 역도원의 말처럼 동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물 가운데 평양과 관련 있는 것은 오늘날 대동강이라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러 중국사서에서는 줄곧 언급되는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인 요녕성 요양지역의 주요 강들은 모두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15세기 후반에 직접 답사를 한 최부의 『표해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sup>40)</sup>

1488, 성종 19년 5월 22일

흐리고 바람이 불었음.

고돈포(高墩鋪)를 지나서 신관문(新關門)에 이르니 긴 토성(土城)이 있었는데, 북쪽으로 장성에 붙어서 남쪽으로 뻗었고, 관문(關門)은 바로 그 북편에 있었으니 곧 성화(成化) 연간에 새로 쌓은 것입니다. 또 대대(大臺)·삼관묘(三官廟)·하만포(河灣鋪)를 지나서 삼차하(三汊河)에 이르니, 삼차하는 곧 요하(遼河)였습니다. 그 근원이 개원(開原)으로부터 동북으로 철령(鐵嶺)을 지나 이곳에 이르러서 혼하(渾河)·태자하(太子河)와 합류해 하나가 된 까닭으로 '삼차하'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대개 요동 지세는 바다에 접근해서 높이 솟아올라 지류(支流)가 모두 역류하는 까닭에 태자하와 혼하가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렀으며, 또 지경 밖의 지류는 모두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 굽이지고 빙 둘러서 모두 이곳에 모이니 부교(浮橋)를 만들어 하류(河流)를 가로 막아 끊었으며 또 배를 당겨 건너게 되므로 '요하도(遼河渡)'라고 불렀습니다. 한 관인(官人)이 하수 언덕의 작은 청사에 앉아서 왕래하는 행인들을 살폈습니다. 그

40) 『표해록』 3권

「晴而風。過高墩鋪。至新關門。有長土城。北附長城而南。關門正当其中。即成化年間所新築也。又過大台，三官廟，河灣鋪。至三汊河。河即遼河也。源自開原。東北經鐵嶺。至此與渾河，太子河合流為一。故名三汊。蓋遼地瀕海而高亢。支河皆逆流。故太子渾河皆自東而西。又有境外支河。皆自北而南。曲折縈迴。俱會于此。作浮橋橫截河流。又挽舟而渡。號為遼河渡。有一官人坐于河岸小亭。以譏察往來行人。其南有聖母孃廟。又過臨河橋。到牛家莊驛。又過石井鋪，沙河在城鋪。至在城驛。驛在海州衛之城西門外。故名衛。亦巨鎮也。東有西牟城山。」

남쪽에는 성모양양묘(聖母孃孃廟)가 있었습니다. 또 임하교(臨河橋)를 지나서 우가장역(牛家莊驛)에 이르고, 석정포(石井鋪)·사하재성포(沙河在城鋪)를 지나서 재성역(在城驛)에 이르니, 재성역은 해주위(海州衛)의 성 서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재성역’이라 이름한 것입니다. 해주위 또한 거진(巨鎭)이었습니다. 동쪽에 서모성산(西牟城山)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최부는 요양지역의 물줄기는 동에서 시작하여 서로 흘러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다.(그림4 참조) 이 기록 이전 『요사』 「지리지」 ‘동경로’에는 13세까지도 패수(溟水)라는 강물이 있었고, 패현(溟縣)이라는 지명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들인가?



[그림 4] 장백대간 표시도(붉은 선을 중심으로 물길이 동서로 나뉜다.)

지금까지 중국 사료를 근거로 하여 고구려 평양성의 위치를 분석해본 결과 고구려 장수왕이 천도한 도읍은 한반도 평양이 아니라 중국 요녕성 요양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선후기 일부 실학자들이나 일본학자들도 이

자료를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을 한반도 내로 비정하였다.

물론 '실학시대'에 박지원, 이종휘, 김경선 등등이 주장하는 다양한 한국사 지리고증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 학자들은 이런 견해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이런 일본학자들의 연구경향은 현대 한국학계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광진 최원호 복기대(2012) 「시론 ‘장백산’과 ‘압록수’의 위치 검토」 『선도문화』13, pp.421-450.
- 복기대(2010) 「고구려 도읍지 천도에 대한 재검토」 『백산학보』 84, pp.199-243.
- 복기대(2016) 「고구려 ‘황성’시대에 대한 시론」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1, January pp. 393-408.
- 손영중(1990) 『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pp.84-87. p.317.
- 유 절저 신태갑 역(2000) 『중국사학사강의』 신서원, pp.413-458.
- 이병도(1992) 「高句麗 東皇城考」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pp.370-374.
- 임찬경(2016) 「고구려 첫 도읍 위치비정에 관한 검토」 『선도문화』20, pp.303-335.
- 白鳥庫吉(1940) 「丸都城及国内城考」, 『朝鮮史研究』 岩波書店.
- 鳥居竜藏(1914) 「丸都城及び国内城の位置に就きて」 『史学雑誌』 25-7, 『鳥居竜藏全集』 第8卷, pp.646-658.
- 魏存成, 「高句麗初, 中期的都城」, 『北方文物』, 1985년 2期.
- 資料: 『広開土王陵碑』, 『泉南生墓誌銘』, 『泉南産墓誌銘』, 『三国史記』, 『三国遺事』 『조선왕조실록』, 『漂海錄』, 『山川記略』, 『熱河日記』, 『燕輶直指』, 『水經』, 『水經註』, 『旧唐書』, 『新唐書』, 『高麗圖經』, 『全遼金詩』, 『遼史』, 『元史』, 『大明一統志』, 『讀史方輿紀要』, 『大清一統志』

논문 투고 일자 : 2016.03.12.

논문 심사 일자 : 2016.04.18.

게재 확정 일자 : 2016.04.28.

---

 < 要 旨 >
 

---

 高句麗の平壤位置の関連記録に関する検討  
 - 日本学者の長寿王遷都説に対する再検討 -

卜箕大

高句麗の都に対する記録は、主に日本側の学者によって、最初の都が置かれた時点に遡及し比定されている。今までそれは、ほとんどが韓半島の平壤(ピョンヤン)というのが通説であった。しかし、『三国史記』や中国の史書の記録を見ると、韓半島の平壤ではないという記録があちこちで見られる。本稿では中国側の資料を根拠に長寿王が遷都した平壤を追跡してみた。その結果、長寿王が遷都した平壤は現在、遼寧省瀋陽、療養一帯という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このような比定は中国の多くの史書を総合して比較分析したもので、信頼すべき価値があると考えられる。この信頼性とは、これまで平壤の位置を考証するのに最も重要な根拠になっていたのは、泪水が東から発源し、西に流れていくということで、このような流れの方向を持つ川が療養地域にも存在するということである。このような根拠を見るとき、長寿王が遷都した平壤の位置は再び研究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とする。今後、韓国側の文獻に記録された長寿王が遷都した平壤の位置についても詳細な研究がなされるべきであろう。

 A Review on the Record of the Location of Pyongyang in Goguryeo  
 -Reconsideration on the Japanese Scholars' Argument of Movement of the Capital by  
 King Jangsoo-

Bok, Gi-Dae

The records on the capital of Goguryeo have been made by mainly Japanese scholars since the first capital. It has been a common view that the capital is Pyongyang in the Korean Peninsula so far. However, some records that the capital could not be Pyongyang in the Korean Peninsula were found in Samguk Sagi and some Chinese history documents. This study tried to retrace the Pyongyang which was transferred by King Jangsu based on the Chinese history documents. The finding of this study has shown that Pyongyang transferred by King Jangsu was the whole area of Shenyang and Liaoyang in Liaoning Province in China. It may be consider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worth to be reliable in the aspect of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the various Chinese history documents. The most important basis for ascertaining of the location of Pyongyang was that Paesu rose from the east and flowed to the west. The reliability of this study, however, has shown that the rivers holding the direction of flows also exist in the area of Liaoyang.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location of Pyongyang transferred by King Jangsu should be studied again. The further study on the location of Pyongyang transferred by King Jangsu, which was also recorded in Korean history documents, should be recommended.